

충장축제·서창역새축제·굿모닝양림·양림&크리스마스·광산뮤직ON페스티벌

광주시, 5대 축제 육성... '축제도시' 브랜드 강화

광주시가 지역 축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축제의 도시 광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2026년 축제육성위원회'를 열어 자치구 5개 축제를 선정하고, 재정 지원계획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선정된 축제는 총 5개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서구 서창역새축제 ▲남구 인문학축제 굿모닝! 양림 ▲남구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축제별 평가등급에 따른 맞춤형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최고등급으로 선정된 광산구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전년보다 증액된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콘텐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재정지원과 함께 축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축제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유기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총사업비 12억 투입해 맞춤형 재정·전문가 컨설팅 지원 광산뮤직ON페스티벌 등 대표축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또 축제 간 연계 콘텐츠를 협업하고 통합 홍보마케팅을 펼쳐 개별축제의 성과가 광주시 전체의 관광브랜드 제고로 이어지도록 동반상승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광훈 기자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관광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 대표축제가 관광객 유입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주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스스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026 우리 동네 골목ON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서구 전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성과를 바탕으로 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돼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해 골목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서구는 예산 총 5000만원을 투입해 관

서구, 상인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살린다

AI 활용 교육·컨설팅도 병행...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접수

내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8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상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마케팅, 소비촉진, 문화행사, 상권환경 개선, 역량 강화 등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도 돕는다. '골목상인 AI 첫걸음 교육'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홍보·마케팅 역량을 높인다. 교육은 오는 30일

과 4월1일 진행하며 수료 실적은 공모사업 평가에 반영한다.

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 설정을 집중 지원해 참여 상인조직이 실행력 있는 사업을 설계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4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가능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yuh7714@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상인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상권의 변화로 이어지는 든든한 사다리가 될 것이다"라며 "서구의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난립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천·계곡 구역 무단 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관내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과 산림 내 계곡·계류, 도랑 등이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하천방제과, 공원녹지과, 건

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실시

TF 구성 총력 대응... 자진 철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설과, 시장산업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6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에 나

설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부터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데크,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이다.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전수 조사와 강력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2026년 영유아·부모 지원 보육사업 본격 추진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부모교육·보육현장 지원 강화

광주 동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육아 안전망'이자 고립된 양육 가정의 '숨구멍' 역할을 하며 ▲가정양육 지원 강화 ▲부모 교육 및 상담 활성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동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영유아가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가정 양육 지원 분야에서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놀이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영유아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모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된다. 센터는 영유아 발달 이해, 긍정 양육, 부모 역할, 아동 권리 존중 등을 주제로 한 부모 교육과 더불어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 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역량 강

화 교육, 컨설팅,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육정책 변화와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 역점사업인 '놀이 발자국, 골든 타임'을 지켜주는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영유아의 발달 지원과 부적응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연계해 지속 관찰과 맞춤형 성장·발달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신규사업인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 감성 동구 아이'를 통해서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일 시간 도서를 지원하고, 독서 연계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영유아가부터 인문학적 소양과 감성을 기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동구 관계자는 "올해는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센터 공식 누리집(www.donggu.kr/scc)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062-608-8822-23)로 문의하면 된다.

/오철수 기자

일본뇌염 주의보... 해빙기 방역 소독 강화

전남도, 생활주변 고인물 제거·모기 물림 주의 당부

전라남도는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빙기 방역소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3월 20일 제주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전남도는 4월 30일까지 22개 시군 방역 취약지 2만 6천922개소 중심으로 해빙기 집중 방역소독을 추진 중이며, 하수구, 쓰레기장 및 축사 인근 모기 유충주요 서식지 방역소독을 강화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친환경 약품을 활용한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며, 기온 상승 및 강우 이후에는 추가 방역을 추진한다.

특히 읍면동별 취약지역을 지정해 지속 관리하고 집중 방역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해 힘을 계획한다.

일본뇌염은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일부에서 고열, 두통, 경련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선제적 방역과 매개모기 감시체계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해빙기 조기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는 생활 주변 고인 물을 제거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